

## **오르솔라 드 캐스트로/필리포 리치 Orsola de Castro and Fillippo Ricci**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르솔라 드 캐스트로와 필리포 리치는 1997년에 '프럼 썸웨어From Somewhere(어딘가로부터)'를 설립하여 기성복 재료로는 쓸 수 없는 원단견본, 재단 후 남은 천 등을 이용하여 의상을 제작하고 있다. 그들은 버려지는 재료임에도 이를 새로운 의상으로 변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심각해져 가는 환경문제의 해결점을 패션계 차원에서 실천하고 있다. 이들은 '런던 패션 위크 London Fashion Week' 주간에 윤리적 패션을 선보이는 전시, '에스테티카Estethica'의 공동설립자이자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영국의 윤리적 패션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 **아네트 코우웬버그 Annet Couwenberg**

네덜란드 태생으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네트 코우웬버그의 작품은 다른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문화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는 상황에서 겪게 되는 문화적 충돌을 다루고 있다. 그와 더불어 아네트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성찰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작품은 여성성으로 상징되는 레이스로 남성성의 상징인 바지를, 특히 미국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카우보이 바지를 과장하여 표현하는 동시에 통상 부드럽게 여겨지는 레이스를 뾰뾰하게 처리함으로써 네덜란드의 상징인 '금욕'에 관한 메시지를 다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 **개리 하비 Gary Harvey**

개리 하비는 재활용 소재를 이용하여 오프 꾸뛰르Haute couture(고급 의상)를 제작하는 영국 디자이너로, 버버리 트렌치 코트나 리바이스 501 청바지와 같은 유명한 의상 아이템을 재활용한 드레스 등을 선보이며 매 시즌마다 언론의 찬사를 받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버려진 하와이안 셔츠와 럭비 선수의 운동복, 버려진 잡지와 신문으로 만든 작품을 선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그의 활동은 윤리적 패션의 실천영역을 확장시키는 의식 있는 디자인의 한 유형을 잘 보여준다.

## **홍승완 Hong Sung Wan**

이번 전시에 출품된 홍승완의 작품은 E.M 포스터의 소설 '모리스Maurice'에서 영감을 얻은 영국적 고전과 모던한 표현을 혼성한 의상으로, 네팔, 인도, 방글라데시 생산자들과의 직거래를 통해 공급된 친환경 공정무역 원단으로 제작된 것이다. 작가는 공정무역을 지구적인 차원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소통이라고 보며 스스로의 방식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아름다운 나눔과 소통,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생각을 의상에 담는다.

## **윤정원 Yoon Jung Won**

윤정원의 작품 <복>은 인형에 다양한 재활용 소재를 사용해 만든 옷을 입히는 형태로 제작된다. 인형 옷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대한 고정적인 관념과 가치 모두를 재활용하여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윤정원의 기발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인형 옷은, 사람의 외형을 충실히 따라 만든 인형에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옷을 이루는 소재들은 본래의 기능을 넘어서는 새로운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 **예란지/하시시 박 Ye Ranji /Hasisi Park**

아이들은 각자의 주관에 따른 개별 취향을 갖기 전까지 어머니의 손에서 전해지는 옷을 입게 된다. 입을 옷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어머니의 사회성, 어머니의 윤리로부터 독립하는 최초의 순간과 마주하는 일이며, 이러한 통과리례를 거쳐 자신의 모습을 원하는 대로 결정하게 된다. <Motherhood>는 어머니의 옷장, 어머니의 사진첩을 열어보며 어머니의 윤리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또한 닮아가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해가는 딸들의 이야기이다.

## **신혜리 Shin Heirie**

이 작품은 고유의 민속적 운율이 담긴 무용가 최승희의 고전무용 속 한 테마를 선택하여, 무용수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공간의 모습을 그대로 재단해 만든 의상과 3D 그래픽 동영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옷은 몸이 최초로 거주하는 건축적 공간이라는 해석을 기반으로, 한복의 춤사위가 입체적으로 드러나는 이 작품은 창의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민속 모티프의 변용을 모색하고 음악과 무용, 의상과 건축적 조형을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 **이경재 Lee Kyoung Jae**

이경재는 대체로 한 번 입고 다시 입지 않게 되는 웨딩드레스가 합성 화학섬유로 만들어진다는 데 착안하여 옥수수, 썬기풀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대지로 자연스럽게 환원되는 섬유로 웨딩드레스를 만든다. <대지를 위한 바느질>은 환경을 살피는 마음으로 용도에 충실하면서도 과정과 절차의 윤리를 실천하는 디자인의 방향을 이야기한다.

## **윤진선/홍선영/채수경 Yun Jin Sun/Hong Sun Young/Chae Soo Kyoung**

세 명의 작가들은 그동안 '리블랭크Reblank'라는 브랜드를 통해 재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 활동을 해왔다. 이들은 재활용한 의류와 자투리 원단을 분해하고 이어붙이는 과정을 통해 바래고 해진 일상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버려진 옷에 두 번째 삶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더한 '리블랭크'의 이번 전시에는 기존의 의상과 함께 시간을 되돌려 근원에 다다르는 의

미를 보여주는 미디어 작품이 함께 선보인다.

## 모바나 첸 Movana Chen

홍콩출신의 작가 모바나 첸은 분쇄기로 잘린 종이를 손뜨개질하여 의상으로 만든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 작업은 여러 나라의 언어가 뒤섞여 있는 파지(破紙)들이 서로 얽히고 짜이는 현상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재활용 의상을 통한 문화적 교류를 실천하는 이 작품들을 실제 사람의 몸에 맞는 사이즈로 제작되어 의상이자 조각이며, 제작활동 자체로 퍼포먼스가 되기도 한다.

## 이정혜 Yi Jeongheah

이정혜가 만들어낸 가상의 패션 브랜드 <동지들 Comrades>은 옷에 몸을 맞추지 않고 몸에 옷을 맞추는 방식을 지향한다. 현대인들은 표준 체형에 대한 강박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나 살아가면서 생의 변화와 함께 몸의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 언제라도 자신의 체형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옷을 통해 모든 순간의 몸들이 그 자체로 것으로 존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이겸비 Lee Kyumbie

슈즈 디자이너로는 드물게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겸비의 이번 전시 작품작은 그간의 다양한 작업들 중에서도 재활용과 민속 모티프를 활용한 것이다. 버려진 소파의 가죽을 분리한 후 새롭게 재단해 만든 부츠와, 현수막과 제품 포장재를 재활용해 만든 구두, 짚신과 고무신처럼 과거에 친숙한 물건이었다가 어느새 잊혀지는 과거의 신발을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들은 평범한 소재가 본래 지니고 있는 특성을 살려 유효한 의미를 획득해내는 기본에 충실하고 있다.

## 아나 파울라 프라이타스 Ana Paula Freitas

브라질 출신의 아나 파울라 프라이타스는 '오바Oba'의 디자이너이자 프로듀서로 파리에서 활동하며 공정 무역을 통한 의상 및 소품들을 제작한다. 그녀가 디자인한 작품들은 주로 캔 뚜껑을 재활용한 것인데, 이는 수공예적인 요소와 결합되어 완성된다. 특히 브라질의 지역공동체(The Cia do Lacre) 여성들의 노동력이 결집된 이 작업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게 만든다.

## 바네사 비크로프트 Vanessa Beecroft

바네사 비크로프트의 일련의 'VB 시리즈'는 전문 모델에게 하이패션 디자이너가 만든 의상이나 신발을 착용하게 한 후, 정지된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게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그 경과를 비디오와 사진으로 담아내는 작품이다. 모델들의 자세가 서서히 흐트러지는 동안, 눈에 보이는 걸모습이나 화려한 치장

이 아닌 사람의 몸과 그 몸의 자연스러움이 드러나게 되고, 작가는 그 변화의 과정을 세심히 담아낸다.

## 전경빈 Chon Kyung Bin

보고 듣고 느끼며 생각하는 옷을 만들기 위해 설립한 전경빈의 '핏보우 *Fitbow*'는 하나의 테마를 가지는 시리즈물로 제작되며,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작품은 2007년부터 진행해온 'Workingman's Dead(노동자의 죽음)'이다. 이 시리즈는 피고용 계층의 불합리한 인권을 다루는 노동문제에 대한 기존의 정치적 접근이 아닌, 노동 그 자체가 가진 순수성과 이에 상반되는 사회적 인식을 다룬 <MAYDAY(노동자의 날)>, 예술 분야의 노동(인생)을 다룬 <HOBOSERIES(호보 시리즈)> 등의 작품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노동에 관한 의미를 보여준다.

## 마크 리우 Mark Liu

마크 리우는 '제로 웨이스트 패션 Zero Waste Fashion(낭비가 없는 패션)'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영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이다. 그는 의류제작 과정에서 약 15%에 달하는 직물이 의상의 패턴을 살리기 위해 버려진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낭비되는 천이 없도록 디자인 단계부터 패턴을 기획한다. 또한 천연염색이나 유기농 직물을 이용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디자인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작품 중 일부는 한국에서 제공한 천연염색 친환경 원단으로 제작된 것이다.

## 그루 g:ru

그루는 아시아의 가난한 여성들이 만든 자연주의 의류와 생활용품을 공정한 가격에 거래하여 빈곤문제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페어트레이드코리아가 진행하는 의류 브랜드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네팔의 로카타 나무에서 만든 종이옷, 베틀로 직접 지어낸 원단으로 자연친화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작은 공정들이 모여 이뤄낸 진실한 노동력이 바탕이 된 착한 옷들을 보여준다.

## 윤미진 Yoon Mee Jin

<뫼비우스 드레스>는 한국 태생으로 미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건축가인 윤미진이 2004년도에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이 작품은 신체와 이를 감싸는 의복,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건축적인 구조 관계를 실험한 것으로 재활용된 공업용 펠트를 안팎의 구분이 없는 뫼비우스띠로 만든 의상이다. 안과 밖이 연결되어 있으며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동시에 풀어지고 교차되는 뫼비우스 구조를 통해 관람객들은 신체와 닿는 안쪽면이 다시 바깥 면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의상을 만나게 되고, 몸과 외부의 관계가 부드럽게 역전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